

## 재판소원법 강행, 초유의 4심제 현실화

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  
확정판결도 헌재가 다시 판단 가능  
여당 "사법개혁 3법 이달 통과 목표"  
국민의힘 "날치기" 대법 "위헌 소지"  
대법관 14명→26명 증원법도 처리

'4심제 도입'이라는 평가를 받는 재판소  
원법(헌법재판소법 개정안)이 11일 더  
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  
회(법사위) 전체회의를 통과했다. 민주당  
은 이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  
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

안과 재판소원법을 함께 법사위 전체회  
의에 상정했다.

재판소원법은 "법원의 재판을 제외  
하고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  
다"는 헌재법 68조에서 '법원의 재판을  
제외한다'는 문구를 빼는 내용을 핵심  
으로 한다. 이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도  
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. 민주당은  
지난해 5월 이후 이른바 '사법 개혁'의  
한 방편으로 이 법안을 발의했다.

사법부와 학계에서는 "소송 시간을  
급격히 늘려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한  
법안"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. 또 민

주당이 갑자기 4심제 도입을 꺼낸 배경  
에 대해 "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법부를  
손보려는 심산"(재경지법 부장판사),  
"헌재의 권한을 기형적으로 확대해 대  
법원의 위상을 깎아내리겠다는 것"(고  
등부장 판사)이라는 반발이 나온다.

기우중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비공  
개로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에서 "헌법  
101조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를 위  
해 둔 장치"라며 "이를 허물겠다는 법  
안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"고 했다.  
대법원을 넘어서서 재판을 거듭하는 건  
대법원을 '최고 법원'으로 명시한 헌법

101조 위반이라는 취지다. 그는 또 "재  
판소원은 대법원까지 3심의 재판을 거  
친 패소 당사자에게 새로운 불복 기회  
를 부여하는 것"이라며 "당사자들은 시  
간과 비용을 들여 계속 다투어야 하고,  
분쟁 해결을 통한 법적 안정성은 극히  
저하될 것"이라고 지적했다. 그러면서  
"분쟁의 실질적 종결은 늦어지지만, 별  
소용도 없는 고비용, 저효율, 비생산적  
인 제도"라고 강조했다. 이날 국민의힘  
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법안심사소  
위 표결에 불참했다. 최서인·조수빈 기자  
» 3면 '재판소원법'으로 계속

## 재판 생중계하자 판사도 변호사도 쇼츠 먹잇감으로

재판 맥락 무시, 짜깁기 왜곡 난무

지난달 유튜브에 "판사 눈알이 불안해  
보인다. 판사가 피고인의 눈치를 봤다"  
는 내용의 쇼츠 동영상 다수 올라왔  
다. 지난달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  
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선  
고 장면 중 일부를 편집한 것들로, 재판  
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백대현 부  
장판사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과 선고  
문을 번갈아 쳐다보는 모습이었다. 법원  
에서는 재판 때 판사가 피고인과 눈을  
맞추기를 권장한다.

"지극인 부장판사가 사형 구형 확인  
후 목소리가 작아졌다"고 주장하는 영  
상도 나타났다.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  
법 형사25부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 내  
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장면 중 일부를  
활용했다. 재판장인 지 부장판사는 '사  
형' '무기징역' 등 구형량을 큰 목소리로  
되풀이해 확인한 후 "알겠습니다"고 덧붙  
였는데, 이 목소리가 작다는 내용이  
었다. 이 영상에는 개그 프로그램의 영  
상과 우스꽝스러운 배경 음악이 붙었다.  
조회 수 370만 회에 5000개에 달하는 댓글  
이 달렸다.

유튜브에는 '변호인에게 박살나는 판  
사' '참교육당한 판사' 등을 제목으로 한  
쇼츠도 다수 유통되고 있다. 서울중앙  
지법 유튜브에 올라온 재판 전체 영상  
의 조회 수는 수백 회에 그치는 반면, 이  
를 활용한 '쇼츠 콘텐츠(쇼츠)'는 많게  
는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다.

문제는 7~8시간에 달하는 재판 가운  
데 일부 장면만 잘라내 재판의 맥락이 사  
라진 채 문구만 남는다는 점이다. 이에  
법원 안팎에서는 내란특검법이 도입한  
'심 재판 중계'의 부작용이 점차 커지고  
있다는 우려가 나온다. 최서인·김보름 기자  
» 5면 '재판 중계'로 계속



2026 밀라노-코르티나동계올림픽은 선수 커풀이 유독 많아 '로맨스 올림픽'으로도 불린다. 1 캐나다 컬링 브렛 갤런트와 조슬린 피터먼, 2 미국 피겨 스케이팅 매디슨 척과 에빈 베이트, 3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유타 레이르담과 미국 유튜버 제이크 폴, 4 미국 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옥사나 마스터스와 애런 파이크, 5 캐나다 아이스하키 마리펠 풀린과 로라 스테이시, 6 스웨덴 컬링 슈발러 부부, 7 이탈리아 피겨 스케이팅 샤를렌 기냐르와 마르코 파브리가 주인공이다. >> 관계기사 2, 20, B6, B7면 [AP·EPA·로이터·연합뉴스, 인스타그램 캡처]

The JoongAng Plus 인간에 심부름시키는 AI, 몰트북이 부른 미래 >> 14·15면 한동훈과 장예찬, 질긴 악연의 전말 >> 18면

### 2026

# 정부지원 이동식에어컨

## 사·전·접·수

요식업 신규 지원

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    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당 최대 2,000만원

01 이동식에어컨

02 산업용선풍기

03 제빙기

전속모델 이만기

(주) 웰템 상담문의 : 1600-4770 (내선 1번)